

노래방에서

고양예술고등학교

장아린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혼자 노래방에  
 간다. 지폐를 교환하고 8번 방으로 들  
 어간다. 노래방 복도 가장 끝방의 옆방.  
 월요일 오후 7시에 끝방은 늘 일탈을  
 즐기러 온 학생들로 차있다. 나는 8  
 번 방에 들어가 바뀌온 지폐를 넣는다.  
 시작하는 노래는 인기차트의 가장 위에  
 있는 곡이다. 간주가 나오면 음악의 소  
 리를 최소한으로 맞춘다. 마이크는 잡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면 옆방  
 의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나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 노래방을 찾는다.  
 음원과 음정이 제대로 맞지 않는 노랫  
 소리로 나는 꼭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선곡 취향만이 아니라 애

인과 헤어졌다거나, 그날 누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선곡이나 목소  
 리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그리다보면 내게  
 주어진 열다섯 곡이 어느새 끝난다.  
 오늘 끝방을 차지한 건 남학생 둘이  
 다. 둘은 갈라진 목소리로 랩을 한다.  
 영어로 된 욕이 계속해서 들린다. ‘올  
 로’라는 말도,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말도 덕션이 제법 또렷하다. 둘이 부르  
 는 랩의 가사에서는 유독 현재와 현실  
 이 자주 등장한다. 둘은 내 열다섯  
 곡이 끝나고도 끝방에 남아있다. 노래방  
 에서 나오자 덥고 무거운 공기가 느껴  
 진다. “올로”라고 작게 뇌까린다.  
 학원으로 가는 길, 내 현실을 생각한  
 다. 교등학교 2학년.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나이. 당장 나오는 기말고사 성적  
 에 떨어야 하는 나이. 나는 친구들에게

현실적이다 못해 비관적이라는 말을 듣  
 는다. 당장 진로 수행평가로 나온 나의  
 장래희망에 관해서 답할 수 없지만 당  
 장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는 답할  
 수 있다. 국어보다는 답이 명징한 수학  
 이 좋다. 아마 이공계열로 내신에 맞춰  
 서 가지 않을까. 문득 오늘이 가장 중  
 요하다는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설교가  
 떠오른다. 나이를 먹고 하나둘 갑작스럽  
 게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본다고. 학  
 생들도 어리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후회없이  
 살라는 말을 남겼다. 당장 몇 개월 후,  
 1년 후, 2년 후의 대학을 바라보고  
 달리는 학생들에게 해주는 조언치고 지  
 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면 정말 내일을 바라보  
 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학원이 끝나고 진로 수행평가지를 붙

잡고도 생각을 꼬리의 꼬리를 문다. 수행평가지  
 를 잠시 내려놓고 구석에 있던 작은 노트를  
 꺼낸다. 날짜를 적고 오늘 있었던 일을 써  
 내려간다. 내 상상속 끝방을 글로 적기는  
 처음이다. 성인이 된 두 올로의 삶을 쓴다.  
 일기의 끝은 ‘나는 현실적인 사람인가’ 하는  
 의문. 올로의 삶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나와  
 거리가 멀다. 두 올로의 미래에서 이제 나의  
 미래를 상상하다 잠에 든다. 진로 수행평가는  
 제출하짐 못했다. 선생님은 점수를 깎는 대신  
 내일 가져오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화요일에 노래방을 간다. 끝방에 들어가 어제  
 쓰고 남은 구깃한 천 원 한 장을 밀어넣는다.  
 구겨진 탕인지 노래방 기계는 네 번 시도  
 끝에야 지폐를 인식한다. 첫 곡은 인기차트의  
 사십오번이라는 애매한 순위의 노래. 노래선  
 정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단순히 감이다.

제목이 주는 느낌과 순번. 멜로디조차  
 잘 모르는 노래였지만 더듬거리며 가사  
 를 따라간다. 스피커로 나오는, 처음 듣  
 는 에코 섞인 내 목소리가 낯설다. 세  
 곡을 부르고 나오는 기분이 썩 유쾌하  
 진 않다. 노래를 부르는 첫 시도는 성  
 공적이기보다 실패에 가깝다. 그럼에도  
 가슴 한구석이 기분 좋게 간질거린다.  
 오늘은 일기장의 두 번째 칸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답을 모르  
 는 국어 문제조차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로 수행평가의 장래희망란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래를 쓰고,  
 이야기를 적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쩌면 오늘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실  
 패의 일부일 것이라 상상하며 인기차트  
 사십오 번 곡을 흥얼거리면서 걷는다.